

임플란트 50만원 vs 233만원...진료비 ‘천차만별’

비급여 항목 의료기관 규모·지역 따라 2~1000배 차이 나
환자들 불편 늘어...심평원 “기관별 진료비 비교 확인을”

의료기관별로 받는 비급여 진료비가 광주 내에서만 적게는 2~3배, 많게는 150~10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비급여 진료 항목 중 절반 가량이 지난해에 비해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환자들이 진료비가 값싼 병원을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3일 ‘전국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에 대해 매겨지는 비용으로,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동일한 항목이라도 의료기관 규모, 지역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는 2024년과 올해 공통 항목 571개 중 278개(48.7%) 항목의 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지역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에 제출한 진료비 가격을 보면, 북구 로덴치과의원은 임플란트 1치당 50만원 가격을 매겼으나 조선대병원에서는 233만 7000원을 매기는 등 180만원 넘게 차이가 벌어졌다.

치과 보철료의 평균 진료비도 메탈(metal) 재질을 기준으로 서구 조영종치과의원은 15만원, 서구 금호치과의원은 55만원을 받는 등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의 경우 남구 대촌서암의원을 가면 단돈 2000원에 받을 수 있지만, 북구 조형준재활의학과

의원이나 광산구 첨단튼튼병원을 가면 30만원을 내야 하는 등 가격 차이가 150배까지 벌어졌다. 추나요법은 단순추나를 기준으로 서구 오름한의원에서 5200원, 동구 천지인한방병원에서 8만원을 받는 등 15배 가격 차이를 보였다.

약침술은 북구 바른한의원·서구 정성가득한의원은 100원, 서구 자연과한의원은 10만원의 가격을 매겼다. 단순 가격표만으로는 1000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동구 동방의원에서는 10만원을 받고 있었지만, 북구 해피니소양병원 등 6곳에서는 30만원을 받고 있었다.

백내장 수술 후 남아있는 수정체에 혼탁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사임프러그 사진 촬영 검사’도 격차가 컸다. 전남대병원에서는 3만 5000원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광주시 동구 파랑새안과의원에서는 22만원을 내야 하는 식이었다. 이 차이는 서울 수도권 병원에서 더욱 컸는데, 서울 연세대병원에서 5400원만 내면 받을 수 있는 검사를 서울 퍼스트삼성안과의원에서는 200만원을 내고 받아야 하는 등 37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심평원은 올해 들어 임플란트, 약침술에서 가격 편차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인 ‘변동 계수’를 통해 가격 편차를 측정했으며, 계수가 클수록 가격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플란트의 변동 계수는 지난해 26이었으나, 올해는 26.4로 증가했다. 상부보철물에 따라 나누면

메탈 임플란트의 계수는 2024년 18.7에서 19.7로 증가했으며, 금(gold) 임플란트는 25에서 27.1로 뛰었다.

약침술의 변동 계수도 지난해 82.4에서 올해 85.9로 늘었으며, 특히 종합병원의 변동계수가 41.4에서 48.4로 뛰어 증가폭이 컸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났다. 약침술의 평균 진료비는 광주 2만 1168원으로, 서울(1만 7253원)을 뺀

여ням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만 800원 수준이었다.

임플란트는 메탈임플란트 기준 평균 진료비가 광주 114만 4889원으로 서울(114만 7030원)과 비슷하며, 전국 평균(112만 5949원)보다 비쌌다. 전남은 111만 4074원이었다.

도수치료비의 경우 광주 9만 7964원, 전남 8만 6912원 수준이었으며 서울(13만 526원)과는 4만

원 넘게 차이가 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 간 비급여 항목의 가격 차이는 진료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비급여 진료를 받기 위해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별 진료비를 비교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능처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가 3일 실시됐다. 광주시 남구 인성고 3학년 학생들이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빛원전 3호기 발전 재개

계획예방정비 마쳐...영광군 “근본적 안전 확보방안 마련” 요구

한빛원전 3호기(가압경수로형·1000MW급)가 두 달여간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다. 영광군은 발전을 앞두고 잦은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감안, 안전 확보 방안을 수립해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3일 새벽 1시 30분께 한빛 3호기에 대한 제2차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다.

한빛3호기는 지난 7월 4일부터 61일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와 함께 원전 연료 교체, 증기 발생기 전열관 전진성 검사, 저압터빈 분해 점검 등을 진행했다.

한수원은 “계획예방정비를 통해 발전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며 “다음 계획예방정비까지 16개월간 무고장·무정지 운전을 이어가며 양질의 전력 생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군은 환경단체와 주민 불안감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최근 한수원에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영광군은 최근 장세일 군수 명의로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 “반복되는 원전사고 및 고장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 확보 방안과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광군의 안전 대책 요구는 최근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에서 발생한 봉산수 누설 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군은 “해당 사고는 원자로 헤드 제작사의 제작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한수원이 단순한 점검식 보수 이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문제의 원자로 헤드 제작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적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도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한수원에 “한빛5호기 신규 원자로헤드를 땀방하여 사용하지 말 것과 불량한 원자로헤드를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전남, 9~10월 농기계·노인·국도 사고 사망자 급증

5년간 234명 사망...연간 교통사고 5건 중 1건 집중

매년 9~10월 햅락철에 광주·전남 지역에서 교통사고와 사망자의 5분의 1이 집중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는 2020년 7718(사망 63명)건, 2021년 7543건(49명), 2022년 7122건(58명), 2023년 6972건(48명), 2024년 6908건(41명)의 사고가 났다.

전남에서는 2020년 9816건(273명), 2021년 8685건(255명), 2022년 8335건(201명), 2023년 8287건(227명), 2024년 8213건(201명) 등이었다.

이 중 광주·전남에서 9~10월에 발생한 사고는 1만 4174(286명)건으로, 17.8%(사망자 비율

20.1%)를 차지했다.

광주는 6329건(52명)으로 17.4%(사망자 20.0%)였다. 전남의 경우 7845건(234명)으로 18.1%(사망자 20.2%)로 집계됐다. 매년 발생하는 사고 건수, 사망자 중 5분의 1은 9~10월 두 달에 집중돼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특히 올해 들어 농기계·노인·국도 단독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가 8월 25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4년 73명에서 2025년 78명,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3명에서 15명으로 5배 급증했다.

단독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4년 26명에서

2025년 37명으로 11명 증가했다. 국도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22명에서 39명으로 늘면서 일반 도로보다 주행속도가 높은 국도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지난 2일 전남도내 22개 시·군에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고 농기계 안전교육, 마을방송·캠페인 등 농업인·고령 보행자 중심 맞춤형 교육과 사고다발 구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집중하는 시기에 맞물려 최근 도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실효성 있는 교통사고 안전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